

# 뽀로로를 통해 보는 유아 인성덕목

\*이 글은 2011년도 기독교학문학회 춘계학술대회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유아와 TV, 인터넷 접촉시간

오늘날의 유아들은 미디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9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9) 결과에 따르면 3~9세 어린이의 주중 TV시청 시간은 15.1시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이며, 주중 인터넷 사용 시간은 8.7시간으로 하루 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무려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아의 TV와 인터넷 접촉 시간은 유아들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약 60%(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64)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모든 미디어가 그 자체로 인간의 인식방식에 영향을 주며,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다. 특히 유아기는 발달의 특성상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며, 모방이나 동일시 현상이 강하여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고 내면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라 유아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시청하고 있는 TV는 유아의 사회화 및 인성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환경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유아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내용면에서도 유아의 사회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가 담고있는 교육적 요소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덕목 분석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교육 덕목을 분석하고, 이를 기독교적 인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에피소드 78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인성교육 덕목을 선별하여, 12가지의 덕목을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인성교육 덕목은 친절, 질서, 예절, 절제, 타인이해 및 존중, 협동, 자기(감정)조절, 양보, 자이존중, 규범준수, 정직, 책임이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뽕뽕뽕 뽕뽕”에 나타난 전반적인 유아 인성교육 덕목

내용구분	인성덕목	빈도(%)	합
기본생활습관	예절	21(13.6)	37(24.0)
	질제	11(7.7)	
	청결	3(2)	
	질서	2(1.3)	
사회 정서 덕목	타인이해 및 존중	42(27.3)	97(63.0)
	협동	23(15)	
	자기조절	18(11.7)	
	자이존중	7(4.6)	
	양보	7(4.6)	
윤리 도덕 덕목	정직	11(7.1)	20(13)
	책임	5(3.3)	
	규범준수	4(2.6)	
합		154(100)	154(100)

“뽕뽕뽕 뽕뽕”에 나타난 전반적인 유아 인성교육 덕목

순위	인성덕목	빈도(%)
1	타인이해 및 존중	42(27.3)
2	협동	23(15)
3	예절	21(13.6)
4	자기조절	18(11.7)
5	정직	11(7.1)
	질제	11(7.1)
7	양보	7(4.6)
	자이존중	7(4.6)
9	책임	5(3.3)
10	규범준수	4(2.6)
11	청결	3(2)
12	질서	2(1.3)
합		154(100)

**사회, 정서적 인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뽕뽕**

첫째, ‘뽕뽕뽕 뽕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덕목들은 사회·정서와 관련된 덕목들이며, 윤리·도덕적 덕목들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뽕뽕뽕 뽕뽕’에서 사회·정서와 관련된 덕목들은 전체에서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윤리·도덕적 덕목들은 13%로 사회·정서와 관련된 덕목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작품이 유아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인성덕목들은 주로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유아가 기본적으로 알고 따르며, 지켜야 하는 윤리적, 도덕적 덕목들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한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적인 세계관 아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위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탠리(Stanley, 2004)는 성경적 성품을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라고 말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인성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윤리·도덕적 덕목들 중 ‘규

범준수’가 겨우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음과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드러나며, 이는 성경적인 인성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관의 뽕뽕**

둘째, ‘뽕뽕뽕 뽕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개별적인 유아 인성교육 덕목은 ‘타인 존중 및 이해’이며, 이는 성경적 성품에서 중시되는 이웃사랑이 잘 나타난 것과 동시에 이 작품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제시되는 성경적 인성 중, 사랑과 화평과 자비의 덕목과 비슷한 덕목으로 일반적인 인성교육 덕목과 성경적 인성덕목 모두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성경적 인성에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수반되지만 일반적 인성교육 덕목에서는 이웃, 즉 타인에게만 그 사랑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타인 존중 및 이해’ 덕목은 다른 그 어떤 인성교육 덕목보다도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상

이 작품은 유아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인성덕목을 주로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규정한 반면 윤리·도덕적 덕목들은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적인 세계관 아래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위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에서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옳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관 아래 있는 사회에서 서로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덕목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윤리교육은 상황윤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따라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성교육의 덕목이 된다. 그러나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이해는 상황윤리를 만들어내며 혼란과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아가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 인성덕목을 균형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

셋째,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교육 덕목들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특별히 시즌 1,2,3으로 진행 될 수록 몇 가지 덕목들만 다루어

지고 있어, 앞으로 제작될 시즌에서는 좀 더 균형적으로 모든 인성교육 덕목들이 다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덕목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인성교육 덕목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포스트모던 사회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음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성교육의 덕목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성격이 강조하는 옹고 그림의 분명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는 태도인 규범 준수나 순종, 인내 등과 같은 덕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들은 유념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부모들과 교사들은 유아들의 인성 및 인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미디어가 되지 않도록, 유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환경에서 흥미 있게 배우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따를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부모와 교사, 자녀 모두가 훈련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양질의 기독교 매체들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방승미 총신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으로 2011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덕목의 성경적 분석’이라는 논문주제로 청년기독교학술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